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김대식 “李대통령 5·18 불참 아쉽다”

한나라당 정용화(왼쪽) 광주시장 후보와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 “대통령께서 바쁜 국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쉽다”라고 말했다.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도 “대통령이 바쁜 일정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찬용 “광주의 자존심 참여당 선택해야”

국민참여당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 등 광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17일 “한나라당에 분노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광주시민은 국민참여당이라는 아름다운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며 “국민참여당을 선택해 광주의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자.”고 말했다.



재에 따른 리더십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들과 연대해 선거후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 순천·광양 방문 지지 호소

민주당 정동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순천·광양을 방문해 무소속 후보들과 접견을 벌이고 있는 조보훈 순천시장과 서종식 광양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다.

특히 박 대표는 “친DJ계, 친 노무현계, 열린우리당계, 구민주계 구도가 아닌 통합된 민주당 모습을 국민들께 각인시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과 박 대표까지 나서 이곳을 찾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무안군수 무소속 후보 2명 단일화 합의

정해균 후보는 자진 사퇴

“3선”에 도전하는 서삼석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와 막판까지 공천 경쟁을 벌였던 정해균 무안군수 무소속 후보가 사퇴했다.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승일·임재택 후보 2명이 18~1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무소속 후보 3인은 당초 후보등록 직후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일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이날 최종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최권일·히태민·김민준기자 cki@

수도권 ‘빅3’ 한나라 우세... 충청권 ‘초박빙’

■ 6·2 지방선거 타지역 광역단체장 판세 분석해보니

서울 오세훈, 경기 김문수, 인천 안상수 후보 우세

‘친노’ 김두관, 경남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앞서

6·2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반면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는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인 초박빙의 승부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유권자 1천51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47%)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35.1%)를 11.9%포인트 차로 앞섰다.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3.3%,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0.7%였다.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13~17일 서울·경기지역 각 800명과 다른 시·도 각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49.7%)와 한 후보(32.3%)가 17.4%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가 13~14일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21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50.8%)와 한 후보(28%)의 지지율 격차가 22.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유시민 변수’에도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우위를 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 후보(42.4%)-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30.2%)-진보신당 심상정 후보(3.2%)의 순위를 보였다. 동아일

보 조사에서는 김 후보, 유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4.1%, 33.2%,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40.1%, 24.5%로 조사되는 등 김 후보가 10%포인트 안팎으로 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 선거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리드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 안 후보-송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4%-33.8%,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40.1%-29.8%로 파악됐다.

한편 동아일보 조사 결과, 경남과 충청권

선거는 초접전 양상이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친노’를 상징하는 무소속 김두관 후보(39%)가 한나라당 이달근 후보(34%)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자유선진당 염동철 후보(35%)가 선두인 가운데 현 대전시장인 한나라당 박성호 후보(28.1%)와 민주당 김원웅 후보(14%)가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43.4%)가 민주당 이시중 후보(34.1%)를 불과 한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었고,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28.1%)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23%)의 각축 속에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15.2%)가 3위로 내려앉은 결과를 보였다.

강원지사 선거도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39%)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31.6%)의 지지율 격차가 7.4%포인트에 불과,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태국 시위 지도자 카티야 장군 사망



피격 닷새만에...정국 긴장 고조

정부 “진정성 보이면 대화 가능”

태국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가 방콕 시위지역 곳곳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 지도자 카티야 사와스디폰 전 특전사령관(소장)이 피격 닷새만에 17일 숨지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난 13일 시위 현장인 라차프라송 거리 주변에서 외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의문의 저격을 당해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카티야가 17일 오전 숨졌다고 병원 측이 이날 밝혔다.

카티야는 UDD의 투쟁 작전을 사실상 총괄한 인물로 태국 정부는 그가 시위대의 테러활동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지목했었다. 특수전에 능통한 군장성 출신인 그는 시위대가 자진해산하더라도 자신은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결사항쟁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UDD 내부에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었다.

카티야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 정국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위대는 그동안 시위의 선봉에 나서서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카티야의 저격 사건에 태국 정부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시위의 강도를 높여왔다.

벌써 나흘째 계속된 시위대와 군경간 총

태국 반정부 시위대 ‘레드셔츠’의 지도자인 카티야 사와스디폰 전 특전사령관(소장)의 딸이 17일 방콕의 한 병원에서 아버지의 모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다. 카티야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 도중 의문의 저격을 받아 닷새만에 이날 숨졌다. /연합뉴스

돌로 군인 1명과 시위 참가자 등 36명이 숨지고 24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새벽에는 시위 장소 인근의 고급호텔인 두스잇타이 호텔이 총격을 받고 대형 폭발음이 들려 투숙객들이 지하로 대피하는 등 시위현장 일대의 혼란도 고조되고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중단하고 화해를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경우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파타나 와타나야곤 정부 대변인은 방송을 통해 “우리는 태국을 평상시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어뢰 공격 입증할 침투경로 집중 분석”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 조사단은 북한의 어뢰공격을 뒷받침할 침투 경로와 잠수함 이동경향, 통신감청 내용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7일 “합조단이 천안함에서 검출된 화학성분과 알루미늄 파편 분석 결과 어뢰 공격으로 결론짓고 이를 뒷받침할 정보·작전부문에 대한 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캐나다의 정보·작전 분야 전문가 3명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전문가들이 합류한 합조단의 정보·작전분석팀은 천안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함(정) 침투 경로와 이동 정황 등을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시점에 23~27일 닷새간 23일 6회, 24일 3회, 26일 1회 등 북측 비파괴에서 상어급 잠수함의 기동이 있었던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6.2 지방선거 후보자 검색 이젠!! 휴대폰으로 하세요!! 휴대폰 3654+무선인터넷 키 SHOW NATE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No.1' (대한민국 No.1)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an and text about a 100% satisfaction guarantee and a 100% refund policy.